

주거학 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

이 현 정(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사회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다변화, 다각화, 다차원화 되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로 주거학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학문, 특히 주거학에 대한 기초학문으로서의 일차적인 기능과 응용학문으로서의 이차적인 기능을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화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주거학 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라는 발표논문을 토대로 주거학 교육의 방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거학은 기초학문이자 응용학문의 성격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복합학문으로, 이로 인해 다학제간적인 학문적 속성은 학문 간의 교류, 즉 통섭의 대상이 되는 장(場)이다. 실제, 주거학은 인간, 환경,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세가지 구성요소에 기초하며, 인간의 생활에 기반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실용(outreach)이라는 영역으로 구현되고, 이는 주거학이 학문으로서 태동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다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영역별 하위범주와 내용이 탄력적으로 재구성되어 왔을 뿐이다.

21세기는 세방화시대로 문화와 감성을 강조하는 시기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학 교육의 방향을 학문적 속성의 이해를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teaching)적 측면에서 주거학은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는 기초학문과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응용학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초기 주거학은 생활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위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의 주거학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특성화된 교육이다. 즉, 기초학문으로서의 주거학의 개념과 이론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응용학문으로서 주거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다소 이원화된 교육과정으로 형성된다. 다만, 전문지식에 대한 범위는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여 특성화 요소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교육구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교육(continuing education)과 부문별 전문인을 위한 특수교육(specialized training)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둘째, 연구(research) 측면에서 주거학은 인간의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끊임없는 과학적 탐색이 이뤄져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개개인의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게 되며,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탐구는 주거학이 본연의 학문적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전문지식 개발에 기여를 하게 된다. 주거학에서의 연구는 과학적 발견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는 기능 이외에도 기존의 학문적 이론으로 현상을 재해석하고 유추하는 기능도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학문적 토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거학 전공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셋째, 주거학의 교육과 연구의 총체적인 실현체가 실용(outreach)이다. 이는 주거학을 실천학문으로서 규명시키는 속성이기도 하는데, 주거학이 교육기관을 통한 학습과 특정 연구대상을 통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 결실이 구체화되고 인간생활에 활용함으로써 그 본연의 학문적 가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다른 어느 학문과의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다각화되고 다차원화되어가는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거학이 실천학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부문의 단체와 기관들과의 연계는 교육을 통한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연구를 통해 결과를 응용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체험적인 학습효과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순환적으로 반영되어 전문인력으로서의 소질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게 된다. 즉, 교육, 연구, 협력이라는 주거학 분야만의 독특한 학문적 순환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학은 인간, 환경,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세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현상을 분석하여 과학화, 체계화함으로써 인간의 생활복지를 구현하는 총체적인 학문이다. 지난 20세기와 달리 21세기 세방화시대의 주거학 교육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고양할 수 있는 특성화된 영역을 구축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학의 본질적인 속성인 교육, 연구, 실용 세가지 측면을 연동시켜 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전문분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학 교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다.